

연구논문

기혼 무자녀 여성의 ‘가족실천’을 통해서 본 생애과정의 탈규범화*

김미영**·김미란***

〈국문초록〉

본 논문은 제도결혼 내 무자녀 가족 여성들의 생애과정이 가지는 탈규범적 가치를 드러내고, 재의미화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 실천은 가족 내 여성에게 부과된 가족 재생산이라는 성역할을 기각함으로써 규범적 생애과정을 변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무자녀 가족으로 사는 삶은 ‘전형적’ 부모역할(parenting)과 모성에 대한 문제의식, 개인의 욕구, 가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되는 과정적 삶을 의미한다. 셋째, 무자녀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를만한 사회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하여, 잔여적 삶으로서의 노년을 새롭게 인식하고 가족네트워크 외부의 친밀감 기회를 통해 노년의 의미를 변화시켜가고자 하는 적극적 주체가 됨을 의미한다.

주제어: 무자녀 가족, 가족실천, 생애과정, 생애과정의 탈규범화, 가족 재생산

* 이 논문은 김미영의 석사학위 논문인 「기혼 무자녀 여성의 ‘가족실천’을 통해서 본 ‘가족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의 일부를 재구성한 것이며, 2007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사업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05).

** 주저자,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실천여성학 석사(kmiyoung84@naver.com)

*** 교신저자,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교수(fuwife@hanmail.net)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가족은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이다. 특히 산업화 후발 주자로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한국과 같은 발전주의 국가는 가족을 가장 작지만 핵심적인 사회적 단위로 상정하고, 지속적인 사회재생산¹⁾을 위한 토대로 활용해 왔다. 국가·기업 등 산업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주도 세력이 인구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교육과 사회복지의 일부를 포괄하는 사회재생산 기능의 안정적 지속을 토대로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의 극대화를 위해 가족을 전략적으로 통제/동원하였다는 의미이다(장경섭, 2011). 가족의 생계와 필요를 개별 가족에게 전가하려는 개발국가의 정책은 가족 내의 전통적 위계질서를 강조함과 동시에, 가족을 경제적 기능을 넘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이자 집합적 정서로 자리잡게 하였다(황정미, 2014: 39). 일련의 사회구조 변동 과정에 따라 한국사회는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의 생애과정이 밀접하게 연관을 맺게 되는, 가족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는 사회로 성격화되었다. 가족주의가 사회의 기저를 이루는 사회에서 기존의 가족규범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은 사회적 재생산을 원활히 수행하는 개인으로 치환된다. 그러나 이미 한국사회의 가족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적 변화를 맞고 있다. 가족규범을 온전하게 수행한다는 것, 즉 '표준적 생애과정'에 따라 삶을 조직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과 위험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러온 일련의 현상들을 통해 알 수 있다.²⁾

1) '사회재생산' 활동이란 부양/살림능력을 갖추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배우자를 부양/수발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일련의 활동을 지칭한다(장경섭, 2011).

오늘날 사회 안전망, 사회재생산 기지로서의 가족은 문제적 공간이 되었다. 가족의 불안정성과 다양성이 증가하는 사회에서 '가족은 죽었다'(스테이시, 2013: 162-180)고 선언되기도 하고, '건강한 가족'으로의 회귀를 요청하기도 한다(이재경, 2004). 한 개인의 일대기를 가족과 결합시키고 있던 온갖 연결고리들이 헐거워지고 있는(백·백-게른스하임, 2006: 75) 현 시점에서, 가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지점들을 포착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사회의 가족과 개인이 어떤 변화의 여정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론적·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족'을 사회변화의 종속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가족규범과 사회의 변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과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모건(2012)의 가족실천(family practice)³⁾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모건은 '가족(family)'이라는 용어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다루기 위한 정교화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전략은 '가족(family)'을 명사로서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즉, 이 용어를 부모되기(parenting)·친족·혼인 등 일련의 실천과 이들 실천에 관련되어 있는 기대와 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족(family)관념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구조화하는 방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부정

2) 대규모 해고와 경제침체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유지되던 가족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높은 이혼율로 표현되던 가족 해체뿐만 아니라, 저임금비정규 노동 영역에 중노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되었다.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취업난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었다. 노동 불안정성을 배경으로 청년인구들은 생애과정 과업의 지연이나 포기 위험을 관리하고자 한다. 개인의 생애과정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구성되는 가족생애 일대기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신광영 외, 2014).

3) 데이비드 모건의 1996년 저서 *Family Connections: An Introduction to Family Studies*의 2012년 번역본인 『가족실행의 새로운 접근-가족의 탐구』에서는 family practice를 '가족실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천이라는 번역으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family practice가 가족과 관련된 일련의 의식적인 실천적 행위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지 않으면서도, 가족(family)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서의 가족실천 개념은 가족에 대한 행위자의 지각과 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세계를 해석하고 형성하는 일상사적 축과 역사적 구성과정으로서 '가족'을 또 다른 축으로, 이 두 수준의 상호작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을 가족 구성원간의 기대와 의무로, 역사적 구성과정과 행위자의 해석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개인이 놓인 가족제도와 규범을 논하는 동시에 행위자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그 실천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검토하게 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인식적 틀을 기반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한국에서 개인의 생애과정⁴⁾이 가족 단계(family stage)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개인이 가족 재생산에 적용되는 규범과 개인적인 욕구 사이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타협하면서 가족을 실천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동거가족이나 동성애 가족처럼 제도 결혼을 경유하지 않는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과 결혼 내 출산을 통한 부모되기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규범적인 생애과정 경로로 제시되는 보편화 사회에서 결혼과 자연화된 출산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약화되는지 검토하고 또 무자녀 가족실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 분석의 주요한 과정인 출산과 양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무자녀라는 조건과 연결하여 생각해 봄으로써 무자녀 가족실천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4) 생애과정관점에 입각하면, 각 개인은 연령지위로 진입하고 이탈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화 되며,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연령지위를 통해 등급화 된다(Cain, 1964; 문혜진, 2010). 연속적인 연령지위의 변화를 '역할과 지위의 이동과정'으로 규정할 때 개인의 지위 성취는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규칙성을 준거로 이동한다(Sorensen, 1986; 이순미, 2014). 즉 연령에 따른 역할구조로서의 생애과정은 개인들로 하여금 따라야 할 규범적 삶의 양식으로 제시 되는데, 한국사회에서는 역할구조의 변화 궤적이 결혼, 출산과 자녀 부양과 같은 가족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규칙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출산과 부양의 실행 주체라는 역할 단계를 기각하는 과정을 통해 규범적 삶의 양식을 변형시키는 실천이 되는 무자녀 가족 실천의 탈규범적 가치를 드러내 보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무자녀 가족'이란

'무자녀 가족'이란 혈연자녀 없이 혼인한 남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연에 근거하지 않거나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말한다(김정미 · 양성은, 2013). 결혼과 출산이 규범적인 생애과정인 사회에서 무자녀는 child-less, 즉 자녀가 결핍된 가족으로서 비정상성과 불완전성을 의미했다. 그러나 '해방'을 의미하는 '자녀를 갖지 않는(child-free)'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Basten, 2009; 이수현, 2012). 한편 한국사회에서 무자녀 가족은 종종 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으로 표현된다. 덩크족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용어(김기란 · 최기호, 2009)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자발성'에 기초한 조어이다. 덩크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자발성'은 의도적으로 임신 ·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사회에서 이는 종종 임신할 수 있음에도 임신하지 않는 몸의 경계를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자발'과 '비자발'이 과연 몸의 경계를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인가는 다시 질문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무자녀 가족은 자발적/비자발적(조준영, 2006) 또는 계획적/결과적 무자녀 가족(이지영, 2013; 이민아, 2013)으로 구분되어 연구 대상이 어느 한 쪽으로 제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물학적인 몸의 결과로서 불임(난임)을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으로 구분하고 자발적 무자녀 가족 범주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출산을 선택하는 여성주체를 강조하여 드러낼 수는 있겠지만(조준영, 2006), 자발과 비자발 사이에서 출산을 연기하고 있는 주체를 삭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임(난임)은 이미 의료 기술의 발달로 영구적 무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에서 난임부부 가족을 비자발적 무자녀 가족이라고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불임이나 난임 가족을 통해 제도 결혼 안에서 기대되는 출산의 과정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겪게 되는 경험을 들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아이없이 가족하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난임상태로 임신과 관련된 의료 시술을 받지 않으면서 무자녀 상태에 있는 여성을 포함하는 ‘결과적 무자녀’ 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⁶⁾

3) 연구참여자

인터뷰 당시 결혼 1년 이상, 가임기(15세-45세)로 현재 자녀가 없으며, 향후 임신계획이 없는 여성 8인을 주요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8인 중에는 난임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의료적인 임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례를 포함하였다. 그리고 가임기 내, 결혼 1년차 이상이면서 현재 임신을 유예하고 있다는 1인(〈사례 9〉)과 건강문제로 임신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1인(〈사례 10〉)을 각각 보조 인터뷰 참여자로 추가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10인의 여성들 중 자신을 전업주부로 소개한 사례는 〈사례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례 5〉 역시 향후 사회 활동을 위한 배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인터뷰 참여자들은 대학교 중퇴 1인, 전문대 졸업 1인을 제외하고 고학력이라 칭할 만한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뷰

6)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무자녀 가족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사회의 무자녀 비율은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중 15세-44세 유배우 부인의 출생아수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15-24세 유배우 부인의 경우 출생아수가 0명인 비율이 24.6%, 25-29세는 38.6%, 30-34세의 경우 16.6%, 35세-39세 5.7%, 40-44세는 3.3%로 집계되었다.

〈표 1〉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사례	이름	본인 나이	결혼 연차	최종학력 / 현직		월가구 소득	
				본인	배우자		
1	지영	41세	15년차	석사	대졸	250-340만원	
				중고교 방과 후 활동 강사	인터넷 신문 기자		
2	은혜	43세	8년차	박사	대졸	650만원	
				대학교수	자영업		
3	고은	40세	(5년 동거 후) 결혼 5년차	대학중퇴	전문대졸	500만원	
				사무직	생산직		
4	은정	41세	3년차	박사수료	박사과정	180만원	
				연구 프로젝트 계약직	대학 내 파트타임		
5	지선 ⁷⁾	35세	8년차	전문대졸	대졸	600-700만원	
				전업주부	사무직		
6	보람	33세	3년차	대졸	대졸	600만원	
				사무직	사무직		
7	정아 ⁸⁾	43세	7년차	석사과정	고졸	800-900만원	
				학생	사업		
8	인원	35세	2년차	석사	박사과정	무응답	
				전업주부	의사, 연구직		
보조 사례	9	진아 ⁹⁾	34세	3년차	대졸	대졸	250만원
					무직 (구직중)	사무직	
보조 사례	10	나영 ¹⁰⁾	34세	3년차	석사	대졸	500만원
					병설유치원 교사	사무직	

- 7) 병원에서 난임판정을 받았고, 인공수정 시술 경험 1회 있음.
 8) 자연임신을 시도한 기간 있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음. 의료적으로 난임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며, 의료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시도한 경험 없음.
 9) 일 때문에 임신을 유예해왔고, 현재 임신출산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라고 응답.
 10) 자궁질환 치료 중으로 임신이 어려운 상태. 향후 임신계획 있음.

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일부 여성에게서 학업은 무자녀 상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응답이 있었지만(〈사례 1〉, 〈사례 4〉), 나머지 사례에 있어 고학력은 무자녀의 원인이라기 보다, 무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다고 들을 수 있었다.

2. 무자녀 가족의 생활세계: 출산을 둘러싼 가족내 갈등을 중심으로

1) 부계혈통주의의 매개자로서 여성의 위치

결혼과 출산이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고 부계혈통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의 출산은 당연한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며느리는 남성의 집에서 대(代)를 이어야 한다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강하게 주어지게 되는데, 조사결과 결혼 내에서 출산이라는 자연화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다양한 차원의 긴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무자녀 가족 여성들은 자녀 출산을 개인적 사건을 넘어 관계적 상황 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례 4〉의 “저만의 문제가 아닌거 같더라고요. 낳고 안 낳고는…”과 같은 서사로 시작하는 응답은 배우자 남성과 원가족 사이에서 출산이 고민되는 맥락을 드러낸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결혼 후 출산이 이토록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높았다는 것이다.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출산과 육아가 뒤따라온다는 걸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그때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러면 아마 저는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게 맞았을 거예요(사례 8).

〈사례 8〉과 같이, 결혼 후 맞닥뜨리게 되는 출산에 대한 기대와 요구들이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인터뷰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실제로 결혼과 출산을 분리해서 생각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하여 사고할 수 없는 영역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 배우자와 무자녀 협상하기

① 적극적 혹은 소극적 동조자로서 남편

〈사례 1〉은 결혼 15년차로 결혼 후 혼자 유학을 다녀오고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임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사례 1〉은 임신은 '내 기호로 내가 결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가 없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사회에서 왜소한 남자로 평가받거나 스스로 상실감을 느낄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결혼과 출산/양육이라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성인'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이 '미성숙'과 '결핍'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할 경우 임신 노력을 해볼 수 있다는 제안에 남편은 '도망'감으로써 소극적으로 무자녀 상태를 유지함에 동조하고 있다. 남편 역시 "낳자, 낳자"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실제로는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는 복합적 감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몸을 통해 벌어지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배우자 남성들도 출산 이후 양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 6〉은 현재 본인과 남편 모두 정규직 일 자리를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다. 남편이 아이가 없는 삶에 대해서 동의한 상태인데, 남편이 동의한 이유는 경제적인 원인이 컸다고 응답한다. 한편, 〈사례 7〉의 경우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수입이 1

역원 정도인 고소득에 속하지만, 현재 사업이 사양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언제 사업을 정리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사업을 정리하게 될 경우 자녀 교육과 결혼을 위해 은퇴시기를 늦춰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에 남편도 아이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구술하였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통해 더해질 삶의 불확실성은 부부가족에게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알 수 없는 이유의 난임 판정을 받은 <사례 5> 역시 무자녀 상태인 일차적 원인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현재로서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라고 응답했다. 인공수정 등 의료행위를 통한 적극적 임신을 거부함으로써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편의 심리는 직업적 ‘성공’과 ‘삶의 질’에 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현재 안정적인 주거와 직장, 수입으로 양육조건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를 통해 일에 대한 몰입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일 이외의 여가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출산이라는 사건이 여성의 진로와 생애에만 제약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남성의 삶 또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② 출산을 설득하는 남편

한국사회의 출산이 여성 개인의 출산이 아니라, 가족 재생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자녀 상태는 가족 안에서 갈등되고 협상될 수밖에 없다.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무자녀 상태를 지지하는 배우자가 있는가 하면, 예상되는 바와 같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생애과업 이행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가족 안에서 자녀의 가치를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출산을 설득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에 의한 출산 설득은 결혼 전 무자녀를 합의한 경우와 출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경우 모두에서 나타났다.

동거생활 중 결혼한 <사례 3>은 동거 전부터 출산의지가 없음을 확고하게 표현했고, 남편도 아이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혼하였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출산에 대한 의향을 계속해서 재확인하고 있으며, 이는 또래의 가족모임에 다녀올 때 마다 빈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4>는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에 연하의 남성과 결혼했다. 만혼인 상황에서 논문 및 취업 문제로 출산 계획이 없음을 밝혔고, 남편이 여기에 동의해서 결혼을 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주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싸움을 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생애 사건으로서 출산이 한 번의 결정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갱신되는 선택의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결혼한 커플 역시 출산을 놓고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었다. <사례 9> 부부는 현재 결혼 3년차인데 결혼 2년차부터는 아이 없이 사는 삶이 괜찮을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못 낳는게 아니라면 아이가 있는 것이 좋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례 9>의 배우자는 아이를 낳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는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다"는 메시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적 맥락에서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는 자녀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둘만 있는 거보다 아이가 하나 있는게 화기애애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좀 둘이 무미건조해질 거 같고. 둘만 있으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입양 생각을 하면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 키우는 행복감이 있고...(사례 4).

계속 우리 신랑이 낳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건 좀 걱정이예요. ...애는 오히려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애를 키우는 재미와 행복이 정말 연애할 때 행복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런 인생의 그런 재미를 못 느껴보는게 좀 아쉬울 거 같기는 하다. 뭔지 모르니

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렇게 찬양하니까(사례 3).

전통사회에서 자녀는 노동력으로서, 노후 부양자로서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존재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자녀는 양육기간과 비용이 증가하였고 자녀를 통한 노년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는 생산적 가치가 높은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과거에 비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울이는 애정의 크기가 더 커졌으며,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 바뀌었다. 바로 정서적 가치로서 자녀가 부상하게 된 것이다(이선이, 2014: 218-242). 친밀감이 중심이 된 현대의 결혼과 가족에서 아이는 가족 내 친밀감의 확장과 강화를 의미한다. 이는 아이가 없는 부부의 생활은 ‘무미건조’하지만 아이가 있으면 ‘화기애애’할 것이라는 상상, ‘키우는 재미’와 ‘행복감’이라는 감정적 자원으로서 자녀가 지목되는 것에서 읽을 수 있다. 부연하면, 현 시대의 결혼은 출산을 전제로 한 예비적 단계로 간주되기보다 상호 감정적 자원을 교류할 일차적 공간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사례 8〉의 “둘이 꼭 찬 생활만 가능하면 된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친밀성이라는 감정적 유대가 관계의 핵심이 되는 사회에서 안정적인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계에 참여하는 상호 개인 간의 더 높은 노력이 요구된다.

애가 없는 상태면, 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관계가 좋게 유지를 해야... 안 그러면 파토날 수도 있다. 이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가 없으면, 물론 애가 있어도 이혼하는 커플을 많이 봤는데, 애가 없으면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좀 극단적인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지도 않을까?(사례 4).

통상적으로 “아이가 없는 부부는 이혼하기 쉽다”는 말은 부부를 강하게 엮는 매개가 자녀라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표현이다. 아이가 없는 부부

가족을 추구하면서도 아이가 없는 부부 가족은 쉽게 해체될 수 있다는 통념이 내면화 된 무자녀 여성에게는 둘의 좋은 관계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염려가 도사리고 있었다. 또한 부부 상호간의 만족스러운 친밀감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일부 여성들에게서 의무와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2) 원가족으로 부터의 출산 압력과 회피 사이

혈족으로서 가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전통적인 효의 가치가 남아있는 사회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선택은 남성과 여성 각자의 원가족과의 경험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결혼 후 부부의 출산은 가족 내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양가 부모를 포함하여, 형제·자매에 이르는 가족네트워크 전체가 출산을 기대하는 것이다. 인터뷰 결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들 사이에서 출산은 소통 가능한 것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출산에 대한 압력은 항상 강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세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갈등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배우자(남성)의 원가족

앞서 논술한 것처럼 부계혈통주의에서 재생산의 매개체인 여성의 몸은 건강한 아이가 출산되어야 할 '공간'으로 가족 공동의 자원이 된다. 다음의 <사례 5>, <사례 7> 모두 임신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례들이다. 그리고 두 사례 모두 의료적으로 여성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 받은 것은 아니다.¹¹⁾ 그러나 가족 내에서 가족 재생산의 중요한 자원인 며느리의 몸

11) <사례 5>는 병원으로 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임 판정'을 받았고, <사례 7>은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의료적 진단을 받아본 바 없다.

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가족 내에서 중심적인 소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존재의 가치가 출산에 집중되어 ‘애기도 못 낳는 병신’으로 비하되기도 한다. 가족 내 임신이 한 쌍의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실제로 임신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책임은 여성의 몸에 부과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시택에 가면은 뜨거운 거, 제가 속이 안 좋아서 뜨거운 거 덮혀서 배에 올려 놓으면은 “니가 배가 차냐.”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그거(임신)를 중심으로 화제를 삼아서 (이야기해요.) 그게 부담감 심해요(사례 5).

은근슬쩍. 예를 들어서 식구들끼리 외식을 해도 시아버지가 식당에서 애들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러우니까 “너도 집에 갈 때 저 중에 하나 집어가라. 데려가서 키워라”,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남편이 마흔 하나에 결혼한 거니까, “장가만 가라가라 했더니 어디 애기도 못 낳는 병신을 데려왔다”고 뭐 그렇게...(사례 7).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시택으로부터 여성에 대한 임신의 압력은 노골적으로 이야기되기보다, 언급하기 불편한 문제로 여겨져 조심스럽고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드러났다.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는 명절 덕담, 혹은 안부인사 같은 대화 속에서 일상적인 압력으로 나타나는데,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둘의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고 정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자녀가 임신이 어려운 몸일 수도 있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비정상’과 ‘결핍’의 낙인으로 감지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임신을 하지 않는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차마 직접적으로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금기처럼 여기고 있었다(〈사례 1〉). 한편 임신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오히려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가족들은 무자녀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극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구술했다. (사례 9),

〈사례 10〉은 임신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는 시어머니와 가족들의 '배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 후 임신이라는 '자연스러운' 사건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긴장감은 무자녀 부부와 부모 이외에도 가족 네트워크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가족 전체의 과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자신(여성)의 원가족

여성의 입장에서 친정은 시대와 유사하지만 또 다른 맥락으로 출산에 대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 인터뷰 결과 무자녀 여성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애과정에 비추어 출산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때로는 무자녀를 지지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사례 4〉, 〈사례 6〉, 〈사례 8〉은 친정아버지로부터 '대(代)'를 이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례 4〉는, 아버지가 대를 이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아버지가 '남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부계혈통의 지속/유지에 대한 책임을 남성인 아버지가 더 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편 친정 엄마들은 자신의 양육과정에 대한 경험과 딸의 진로·계획에 비추어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래도 하나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설득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는 〈사례 6〉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듯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깔려있는 회유이기도 하다. 이런 걱정은 이미 결혼과 가족의 의미가 전통적 사고방식을 상당부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아버지-남편-아들(자녀)을 통해 가족 내에서 지위와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전통적 가족 모델의 영향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여성의 가족 네트워크에서의 대응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을 둘러싼 원가족과의 압력과 긴장감 속에서 무자녀 여성들은 어떤 실천을 보여주는가? 인터뷰 참여자의 대부분이 시택에 비해 친정에는 무자녀 계획을 쉽게 이야기하거나 공표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사례 1〉은 친정에는 일찍부터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선진포고’를 하고 계속된 회유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사례 1〉은 시택에는 이와 같이 ‘선진포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시택에는) 이렇게 “안 가져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건 왜냐하면은, 정말 그 어떤… 멘탈의 문제라서 그런 걸 잘못 건드리면… 부모님들하고는 그렇게 싸우면 안되요.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키거나 가르치려고 들면 안되요(사례 1).

시택에만 가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명절에 절하고 그러면 다 얘기 얘기만 하시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애를 한명은 낳아야 되나. (애를 낳아야) 내가 효도하는 건가? 내가 어른들한테 못할 짓인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사례 5).

임신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행위 자체가 부모님들에게 ‘못할 짓’은 아닌가 검열하게 되고 급기야 고민 끝에 아이라는 존재가 부모님에 대한 ‘효(孝)’에까지 연결된다는 점은 한국 가족의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다층적인 의미와 연결되는 무자녀 상태는, 무자녀 여성들이 스스로의 행위양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를 대단히 복잡적으로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문제로 임신을 미뤘오던 〈사례 9〉는 가족들에게 임신을 미루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다.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가족들은 손위 형님의 임신을 축하하는 〈사례 9〉의 모습을 ‘쿨한 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례 9〉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적 존재가 되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쿨한 척'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이나 '결핍'을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 외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 줄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가족 관계망 속에서 출산과 관련한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개인이 놓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저는 근데 그런 거(아이문제)로 기죽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막상 그런 거에 닥쳤을 때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감당해야 되는거고. 남편말로 일 년에 명절 두 번인데 그때만 참아라... “그래 이날만 참는다” 그러고(사례 5).

(대를 이어야 한다는게) 물론 부담이긴 한데, ... 근데 낳아야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요. 버르장머리가 없죠. (웃음) 아버님도 인식이 트이셔서 많이 이해해주시는데, 속으로는 모르죠. “앞집에 애가 운다”, “앞집에 애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사례 4).

‘아이 없음’이라는 결핍의 기호는 가족 안에서 무자녀 여성으로 하여금 대단히 큰 억압과 상처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억압받는 여성 - 피해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 이는 가족과 사회에서 출산하지 않는 여성이 받는 억압과 차별이 크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 결혼 안의 무자녀 여성들은 이 억압의 문제를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함으로써 ‘버르장머리 없게’ 버티거나, 갈등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며 순간을 ‘참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자신을 억압의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출산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행위자로 재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선택지로서의 출산: 무자녀가 고려되는 맥락

1) ‘전형적인’ 부모 역할¹²⁾과 모성에 대한 거부

모건(2012: 125)은 가족관계가 항상 젠더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 실천의 당사자들이 지배적 혼인 모델과는 다른 가정생활의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가족이 젠더 정체성을 직접 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모호하게 할 수도 있다고 논한다. 특정한 연령대에 도달해야 할 역할 지위인 ‘부모됨’은 규범적인 생애과정에서 이성애 가족규범의 핵심으로 작용하는데, 제도 결혼과 생물학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역할 단계는 어떤 맥락에서 고려되고 어떻게 의미화되는가?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 중 일부는 결혼 후 출산이라는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가족 내 자녀중심성 자체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갖거나, 직접적으로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전형적인 부모역할과 모성을 수행할 주체로 지목되는 것에 강한 반발을 보임으로써 규범적 생애과정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사례 3>과 <사례 4>, <사례 5>는 전형적인 생애과정과 삶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가 없는 이유를 설명할 것을 계속 요구받지만, 실제로 자녀가 있어야 할 이유를 왜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사례 3>)을 통해 결혼과 출산의 정상적인 모델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삶이 어울리는가를 고려함으로써 자신의 생애과정을 선택하겠다는 의지(<사례 4>), 남들과 똑같지 않은 삶이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전제(<사례 5>),를 통해, 기대되는 역할 규범에 맞추어 사는 삶이 아니라 적극

12) 아버지 역할수행(fathering), 어머니 역할수행(mothering)과 같은 부모역할의 개념은 많은 변인을 조건으로 하는 사회적 범주로, 상이한 시대와 공간속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기턴스, 2007: 54).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부모 역할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현대산업사회 핵가족을 배경으로 상정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가족단위 재 생산을 수행하는 한 쌍의 부부가 자녀 양육의 준거틀로 삼는 규범을 의미한다.

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무자녀 가족 여성들이 전형적인 부모됨의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적인 삶을 불편하게 인식하는 지점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 당연시된다는 것과 자녀와의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부모(엄마)의 삶이 재편될 것이라는 가정이었다. 최근 방송에 넘쳐나는 육아예능은 돌봄 노동의 고단함보다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자상한 부모의 역할을 내세워 가족의 소중함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한겨레 21』, 2014. 8. 19).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녀를 위한 부모의 책임과 희생은 숭고한 이미지로 재현되지만, 무자녀 여성들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과 희생의 역할 구도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준거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4>는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자 계획한 바를 수정하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자녀를 길러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자녀의 가치를 의심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부모역할과 자연화된 모성 역시 회의되거나 의심된다. <사례 2> 역시 아이를 키우는 과정 자체를 '끔찍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뷰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부모의 손을 필요로 하는 아이'를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과 공포로 느껴지는 것인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자녀 양육의 긍정적 메시지에 위반되는 감정이다. 여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사례 6>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자녀는 어려서부터 사랑하고 아껴줘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력과 경제력의 기반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기대에 걸맞은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게다가 결혼을 하기까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러한 부모 역할을 위해 자신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규범적 부모 역할을 해 낼 수 있을 것인가와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무자녀 여성들의 갈등 지점이다. 이 문제의식들을 통해 주목할 점은, 상기와 같은 질문과 갈등은 아이러니하게

도 강화된 부모역할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교 육시키며 결혼시켜야 한다는 서사가 소비주의를 중심으로 고도화되어 있고, 이 과정을 문제시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부모됨과 양육의 서사를 변형시키려 고 하기 보다는 그대로 내면화하면서 그 역할 내용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2) 개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정체성 욕구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결혼제도 안에서의 다양한 역할 요구와 자녀 로 인한 자신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 인터뷰 참여자들은 출산을 먼저 한 친구나 형제·자매의 삶을 목격하 는 것이 무자녀를 실천하는데에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였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생애과정의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또래 집단의 경험은 가까운 자 신의 미래로 인식되거나 동일시됨으로써 더 깊은 성찰의 조건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사례 9>는 주변에서 먼저 출산한 친구들을 보며 더 출산을 고 민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낮은 만족도와 자존감을 영위하는 상태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례 9>는 사 회적 존재로서의 욕구를 억누르고 사는 삶 자체를 ‘주저앉음’이라고 표현 하고 있었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과정은 어떻게 여성을 ‘주저앉음’의 상태 로 내모는가? ‘주저앉음’이라는 표현은 양육기간 동안 여성이 주요한 돌봄 의 주체로 지목되어 가정이라는 공간에 갇히고 단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한 개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매 물되어 개인 혹은 사회적 자아로서 발전하기 어려운 ‘정체(停滯)감’을 의미 하기도 한다. 이미 출산을 경험한 여성뿐만 아니라,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 을 앞둔 여성들은 종종 이러한 정체(停滯)감이나 지연(遲延)을 경험한다. 인터뷰 참여자 중 유일한 전업주부인 <사례 5>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삶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에 뛰어들어야 할 상황도 아

나라서 굳이 취업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살림 이외의 다른 사회적 인정을 획득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제3의 공간을 고민하였다. 그러나 출산을 하지 않는 상태는 무엇을 시작하기에 항상 불안한 상태라고 여겨지며, 시작을 미루어 왔다. 그러다가 최근 남편이 무자녀 가족으로 사는 삶을 설득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이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출산할 것이 요구되는 생애단계에서 출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 자체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해 나갈 의지를 제한하기도 한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건이 여성의 삶에 끼치는 변화와 영향이 특정할 시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삶을 관통하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여성들은, 출산 이후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공포를 느낀다. 이것은 출산 이후 자녀의 생애 과정에 통합됨으로써 자기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암시한다.

자기 정체성의 보존 요구가 강한 무자녀 여성들에게서 필연적으로 자녀와의 분리/혹은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아이라는 표현은 드물지 않게 발견되었다. 시댁으로부터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높은 책임감으로 부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고 자평하는 <사례 8>은 결혼 1년만에 역할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높음을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타인처럼 분리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자녀를 부모인 자신과는 별개로 새로운 인격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는, '옆에 두고 쓸어주고 닦아주며'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존재로서 아이를 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례 8>은 자녀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인격으로서 존엄을 지켜내며 살아가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자녀인 삶을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사회적 존재로, 개인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것, 그리고 가족 안에서 역할과 책임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따로 또 같이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가 무자녀를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맥락의 하나라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3) 아이를 낳을 만한 사회인가?

(1)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도 조사에 따르면 아동 1인당 소요되는 월 평균 양육비는 118만 9천원, 출생부터 대학 졸업시까지의 전체 양육비용은 3억 896만원으로 집계되었다(김승권 외, 2012).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은 정부로 하여금 보육·교육비의 지원을 확대하거나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있게 했다. 인터뷰를 통해 만난 무자녀 여성들은 각기 다른 소득 수준에 계층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지만, 한 사례(〈사례 2〉)를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경제적 문제가 출산에 있어 주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사례 1〉은 가까이에서 언니의 출산과 육아를 목격하며 아이를 둘러싼 돈 벌기와 쓰기의 이상한 고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언니가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남편하고 둘이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애는 계속 맡기고, 돈을 벌어서 애한테 다 들어가고 계속 반복인거예요.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 그러니까 행복을 자꾸 미루어서 내가 뭐뭐를 이룩하면, 원하는 목표를, 꿈을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 이든간에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수 있다. 당장 행복해라. 왜 그걸 계속 연기하는지(사례1).

〈사례 1〉은 아이를 양육하며 사는 삶이 행복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아이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당장 육아를 위해서 지출할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다른 인터뷰 참여자들도 단지 양육을 감당할 비용이 '있음' 혹은 '없음'을 넘어서 행복과 삶의 질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가 출산에서 50%를 차지한다고 응답한 〈사례 9〉는 경제적인 문제를 삶의 질과 미래와 연관지어 이야기하고 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의 삶은 벌면 버는대로 소비하고 자주 여행하면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담보하고 싶지 않다고 구술했다. 〈사례 9〉의 이러한 응답은 행복을 연기하며 살아온 부모님의 한 주기 인생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다. 규범적인 생애과정에 충실히 살아온 부모세대가 맞게 된 미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성찰하며 규범적인 생애과정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현재적 행복이 중요해진 세대에게,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야 할 아이의 존재는 질문될 수 밖에 없고, 노년의 안정과 교환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일·가족 양립의 불가능

인터뷰를 통해 만난 여성들은 〈사례 5〉를 제외하고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쉬고 있는가 하면, 다양한 직업군에서 각각의 고용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이외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일'과 양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무자녀 여성들이 일·가족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맥락은 출산과 육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일·가

족 양립이라는 인식 자체가 여성에게 폭력적이라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언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례 6〉은 최근 방송 육아프로그램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 나와도 짜증이 난다고 응답했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있는 삶이 그렇게 행복하게만 그려질 수 없다는 것이다. 〈사례 6〉은 현재 금융업종에서 정규직으로 종사하고 있다. 정규직 일자리지만, 만약 출산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휴가는 출산전후휴가 3개월 뿐이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자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선택이 된다.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 큼을 보여주는 부분이다.¹⁴⁾ 여기에 최근 새로 받은 주택대출이나 연금저축 등을 생각할 때 일을 그만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사례 6〉은 자신의 수입으로 납입하고 있는 자신 명의의 노후연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안정적인 일자리라곤 여겨지는 공무원들도 출산·육아휴가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는 다음의 〈사례 10〉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줄어들 가계소득을 생각하면 〈사례 6〉처럼 육아휴직을 오래 낸다는 것은 마음뿐인 일인 것이다. 아이에게 드는 비용문제도

14) 《근로기준법》(2014. 1. 21. 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20. 개정) 제3장 모성 보호 조항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휴직을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함으로써 승진 등에 차별이 있어도 안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있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출/퇴근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까마득하기만 하다. 병설유치원 교사로 아이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입장으로 퇴근시간에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러 퇴근하는 동료 교사도 안타깝고, 기관에서 남아 부모님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일과 아이로 대표되는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은 자신의 조건에 비추어 고민되고, 이에 따라 그 결정이 유보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육아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 과정은 누구를 위한 과정인가를 의심하게 됨을 볼 수 있다. 고통스러운 육아의 과정에서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도, 기관에서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가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모성 보호와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요구되고 의도에 맞게 제정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무자녀 여성들은 제도의 효과성을 떠나, 일과 가족의 양립이 일과 출산의 양립으로 얽히며 독립할 만한 사회적 모델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애기 낳으면, 낳는 것도 내가 낳고, 키우는 것도 내가 키우고, 돈도 벌고 살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노예야? 노예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런 과업을 왜 내가 다 해야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밀지는 장사에요. 내 인생 잿빛이야 잿빛(사례 4).

여자들이 좀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어떻게 살림하면서 애도 낳고 일도 하고, 세 가지를 다해?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세 개를 다 약착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를 되게 능력있다고 평가하고, 다 그렇게 사는 삶을 따라가야 하는 것 처럼 하니까. 그런 지점이 좀 불편한 거지. 난 여자들이 좀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해. 힘든데 그걸 다 해내는 게 행복할거야?(사례 8).

여성의 사회활동이 가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남성의 부양만으로 가계가 운영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일·살림·출산과 육아 세 가지를 모두 해 내야 한다는 부담은 그 당위성만큼이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가정이 여성에게 특화된 영역이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 일·가족 양립 담론을 통해 여성들은 두 영역 모두에서 여성이 자신 몫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사례 8>은 이런 상황을 두고 여성들이 솔직해져야 할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역설적이게도 일과 가족(출산과 돌봄)의 역할이 상충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는 인식과, 워킹맘이 여성의 당연한 모델이 되는 현상이 무자녀 여성들로 하여금 규범적 삶을 그대로 수용하는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출산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생애를 구성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3) 노후의 외로움과 복지

아이가 경제적 가치보다는 정서적 가치가 높은 존재가 된 현시점에서, 무자녀 가족 여성들은 인터뷰 결과 노후의 문제를 자녀를 통한 부양 보다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적 상태와 연결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히려 노년의 부양과 돌봄의 문제는 복지나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의 감퇴로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활동의 은퇴로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이미지화 되기가 어렵다. 노년기에 겪게되는 이러한 병고(病苦),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는 노년인 개인의 심리적 외로움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게 된다(정태연·조은영, 2005). 노년이 외롭고 고독할 것이라는 전제는 아이가 없는 삶을 고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나이가 들에 따라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배제되

는 기존의 노년 이미지에서 그나마 친밀감을 공유할 만한 대상은 혈연으로서 연결된 자녀일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밀감이 배우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무자녀 가족 여성의 경우, <사례 2>와 <사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편의 건강과 생존이 노후의 외로움에 있어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노후의 외로움이 이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한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부부의 노년이 보다 덜 외로울 것이라고 상상하지는 않았다. 현실적으로 자녀의 삶을 통해서 정서적, 물질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 5>, <사례 7>은 자신들도 그리 많은 왕래를 하고 지내지 못하고 있으며, 남편이 효자가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자기 살기 바쁜 시대'에서 '개인' 혹은 '핵가족'으로 살아가기만도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여기에 <사례 1>과 <사례 5>는 '자녀 없음'의 상태가 노후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조건이 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례 5>는 현재 가게 수입의 일부를 노후 준비로 저축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녀의 경제적 가치가 사라진 상황에서 노년의 외로움이라는 불안과 노후 준비가 교환되는 것이다.

무자녀 가족 여성들은 노년의 외로움과 돌봄의 문제가 구체화되는 시기를 배우자와의 사별 이후로 상상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없이 삶을 혼자 영위해야 한다는 것이 진정으로 혼자가 되는 '위기'로 여겨지는 것이다. 친밀감의 영역에서 서로의 돌봄을 통한 삶이 불가능할 때에 복지의 필요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사례 6>과 <사례 4> 모두 희망하는 노년의 복지로 '유럽식 공동주택' 모델을 떠올렸다. 독립된 공간을 영위하면서 또래 간의 친밀감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자원을 통한 돌봄이 있는 장소를 원하는 것이다. 한편 제도 바깥에서 노년의 고립과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와 시도들도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요하

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는 삶이 정상적 삶의 모델이 되는 사회에서 ‘자녀없음’은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과 삶의 일부를 공유할 중요한 자원 하나를 잃는 셈이 된다. 〈사례 7〉 외에도 자녀가 주요한 화제가 되는 네트워크에는 자연스럽게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자녀양육을 끝낸 가족도 언젠간 부부가족으로 남게 되고, 부부해체(이혼)가 더 이상 특별한 생애사건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무자녀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과 자녀 이외의 소재를 중심으로 만나는 네트워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¹⁵⁾ 가족 외 네트워크의 지속은 집합적 삶으로서 노후를 구상하는 거점이 되기도 한다.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본 집합적 삶으로서의 노후는 〈사례 7〉, 〈사례 2〉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활공간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관심사를 공유하며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장으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사례 5〉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투영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사례 1〉, 〈사례 3〉이 말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 형태의 삶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무자녀 가족 여성들은 노후의 삶을 젊음의 잔여적 삶이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의 질을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일구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4) 생물학적 시계로서의 가임기와 난임

제도화된 생애과정이 형성됨에 따라 결혼적령기라는 시간적 개념이 생겨났다면, 가임기는 여성의 몸이 출산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시간단위를 의미한다. 임신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 더 나아가

15) 〈사례 2〉의 경우 비슷한 직무의 사람들과 친목모임, 〈사례 3〉은 ‘무자상’ 클럽(무자식이 상팔자 클럽), 〈사례 5〉는 봉사활동 모임과 운동모임, 〈사례 7〉은 영화, 사진 여가 모임.

임신을 둘러싼 다양한 생식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가임기라는 개념은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의 시간'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식기술의 발달과 출산의 의료화는 가임기간 내의 여성을 '자연적인' 임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자연스럽게 의료적 공간으로 지목한다. 무자녀 가족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출산을 경유하지 않기로 한 완결된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들은 가임기라는 생물학적 시계가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큰 불안이면서 갈등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인터뷰에 의하면, 임신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임기간이 지속된다는 것은 일종의 '공포'로 체감된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사례 3>에게도 가임기가 끝나가는 상황은 무자녀 상태를 계속 유지해도 될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불안과 걱정의 시간이 된다. 40대에 접어든 인터뷰 참여자들이 느끼는 가임기에 대한 불안은 이제 더 이상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편, 30대 무자녀 가족 여성들은 의료적으로 구성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시간적 단위인 35세라는 연령에 보다 많은 의식을 하고 있었다.

올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남편이 너무 원해서. 이 친구가 급해지는 건 나의 생물학적 나이인거 같아요. 내가 서른둘만 되었어도... 넷 되니까 급해하더라고요, 근데 이십대도 위협할 수 있고 그런건데, 젊을 때 낳아야 아무래도 좋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사례 8).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다만 불안한 거 하나는 갖고 싶을 때 못 갖을까봐. 지금 이렇게 원치 않는데, 지금은 원하지 않으니까 상관 없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서른다섯이란 말이에요.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말하는 시간에 다다라서, 저는 도리어. 그 다음에 애가 아플까봐. 그게 내가 늦어서,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갖지 않을까? 그거. 그거 하나가 있어요(사례 9).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있어 이토록 '35세'를 의식하는 이유는 널리 유포되어 있는 고령 출산의 위험에 관한 정보들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산부인과연맹에서는 만35세 이상의 나이에 첫 임신을 한 경우를 고령 초산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받아들여 한국사회는 초산 혹은 경산의 구별 없이 만35세 이상의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고령의 임신은 모성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신 합병증과 불량한 출산결과(adverse birth outcome)인 조산, 사산, 영아 사망, 장애 및 선천성 기형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이소영, 2014). 이러한 의료 정보를 익히 들어온 여성들은, 출산이 20대도 위협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항명을 하면서도 걱정과 두려움에 포섭되어 출산을 고민하게 된다. 산모가 위험하거나, 출산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재 추구하는 '아이없음'의 상태를 일종의 모험으로 여기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출산계획이 전혀 없는 <사례 1>은 반복되는 연기 속에서 생물학적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객이 전도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자연적인 임신이 어렵다 하더라도, 임신에 대한 의지가 생겼을 때 의료적인 방법을 빌려서 가능할 수도 있는 문제를 미리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행복의 추구를 목적으로 무자녀로 사는 현재의 의미를 반감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례 4> 역시 늦은 결혼과 남아있는 학업으로 임신이 고민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후에 자연적인 임신이 안 될 경우 의료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료적인 기술을 통한 임신가능성이 역설적이게도 당장의 무자녀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출산에 있어서 의료기술이 출산을 해야 할 모체로서 적절한 연령규범을 구성하는 한편, 다시 출산의 당사자 여성으로 하여금 출산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녀 출산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에게 '자연스럽게' 벌어질 사건으로 기

대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출산은 전혀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있으며, 난임이라고 불리어지는 몸의 상태에서 여성은 다시 의료적인 기술과 자녀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아이를 가지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자연임신이 되지 않은 난임 사례인 〈사례2〉, 〈사례 5〉, 〈사례 7〉의 경우 각각 병원에서 임신과 관련해서 진단, 또는 시술을 받아본 사례이다. 시택으로부터 맘머느리 역할과 출산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고있던 〈사례 7〉의 경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고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시술을 받으려 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한다. 〈사례 5〉 역시 한 번의 시술을 받아 보았지만, 삶에서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과 합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시술을 시도하지 않았다. '결혼 후 출산'이라는 규범은 아직까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무자녀 가족 여성들은 난임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의료시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제도결혼 안에서 자녀가 어떤 의미인지, 자녀를 통하지 않는 가족친밀감을 어떻게 추구하며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함으로써 생애과정을 주체적으로 조직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이 논문은 기혼 무자녀(child-free) 여성이 출산을 중심으로 어떠한 갈등적 구조에 놓여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족실천(family practice)' 관점에 의하면,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제도·사회규범과 구성원 내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분석 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애가 가족의 생애와 강력하게 맞물려 조직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인기 생애과정의 주요한 관문이자, 사회재생산의 핵심적 과정인 결혼과 출산에 주목하여 연구 질문을 구성하였다. 주요 연구대상으로 기혼 무자녀 여성을 선정한 것은,

제도 결혼 내부에서 재생산을 둘러싼 가족실천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의 출산과 양육이 어떠한 의미변화 가운데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연구 질문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기혼 무자녀 여성은 가족 네트워크 내부의 압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전통적인 대(代)를 이어야 한다는 개념,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 불효라고 생각된다는 응답들 속에서 아직 출산이 ‘여성출산’이 아니라 ‘가족 재생산’이라는 의미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생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부모/모성 수행에 대한 거부와, ‘개인’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무자녀 실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욕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무자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혼과 출산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정상성’의 경로를 의심하고 회의함으로써 규범적인 생애과정에 변형을 가져오는 실천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무자녀 가족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결정적 이유로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했다. 일·가족 양립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들은 현실에서 충분한 실효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소비와 경쟁을 중심으로 고도화되어 있는 양육·교육시스템은, 가족 내 자원의 큰 몫을 교육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산과 양육은 노후의 생존과 교환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무자녀 가족 여성들은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조직해 나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노년의 삶을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 가족을 넘어 친밀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노년의 삶을 의미있는 시기로 기획하고자 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잔여적 삶으로 평가되던 기존의 노년의 의미를 적극적인 상상과 준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무자녀 가족 실천의 함의를 제기해볼 수 있다.

제도 결혼 가족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기획하며 개인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재생산의 문제에서 드러나듯이 전통적·규범적 가치와의 대립구도 속에서 나타난다. 상이한 가치의 공존은 한 개인 안에서, 그리고 가족구성원 간 모두에서 발견된다. 쉽게는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 간 가족 가치가 다르게 의미화될 뿐만 아니라, 부계혈통주의의 매개자로서 며느리 역할을 거부하면서도 효도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동반하는 것처럼, 한 개인 안에서도 기존의 질서와 개인적 정체성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와 욕구가 '동시적 비동시성'(백·백-게른스하임, 2012: 120-121)의 형태로 공존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전통·나이·순서·이성애와 같은 다양한 규범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요한 성인기 과업으로 의미화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임신·출산이라는 순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생애과정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표준적 생애과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생애과정의 다양성을 상상하기 어렵게 하고, 경로의존적인 삶을 선택하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제도결혼 안에서 친밀감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키려는 의지에 따라 가족실천을 기획함으로써 규범적인 생애과정과 가족 내 역할 각본을 변화시키는 행위자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과 가족은 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이며, 가족이라는 공간이 정치적 공간으로 재확인될 수 있다(샤, 2013: 211-212.). 또한 무자녀인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를만한 사회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다. 기본적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부모노릇(parenting)과 과잉 교육열에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었고, 일·가족 양립 문제를 가사노동 분업과 안정적인 일자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 차원으로 사고하고 있었다. 또한 노년을 부양 대상자로서의 잔여적 삶이 아니라, 가족 네트워크 외부에서 상호 돌봄의 체계를 구축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기획자로서 시민성을 발휘하는 주체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기틴스, 다이애너(2007), 『가족은 없다』, 안호용 역, 서울: 일신사, Gittins, D.(1993), *Family in Question*, London: Macmillan.
- 김기란 · 최기호(2009), 『대중문화사전』,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승권 · 김유경 · 김혜련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미 · 양성은(2013),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5호, 79-95쪽.
- 모건, 데이비드(2012), 『가족의 탐구: 가족실행의 새로운 접근』, 안호용 역, 서울: 이학사, Morgan, D. H. J.(1996), *Family Connections: An Introduction to Family Studies*, Cambridge: Polity Press.
- 문혜진(2010), “생애과정 관점에 대한 고찰과 적용: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사회복지연구』, 제41권 3호, 349-378쪽.
- 벡, 울리히 ·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06),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 무나 정상적인 혼란』, 배은경 · 권기돈 · 강수영 역, 서울: 새물결, Beck, U. and E. Beck-Gernsheim(1995), *The Normal Chaos of Love*, Cambridge: Polity Press.
- _____ (2012), 『장거리 사랑』, 이재원 · 홍찬숙 역, 서울: 새물결, Beck, U. and E. Beck-Gernsheim(2011), *Distant Love*, Cambridge: Polity Press.
- 샤, 푸르비(2013), “가정을 다시 생각한다”, 『페미니즘, 왼쪽날개를 펴다』, 낸시 홈스트롬 엮음, 서울: 메이데이, Holmstrom, N.(ed.)(2002), *The Socialist Feminist Project: A Contemporary Reader in Theory and Polit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11-212쪽.
- 스테이시, 주디스(2013), “가족은 죽었다, 새로운 가족 만세!”, 『페미니즘,

- 왼쪽날개를 퍼다』, 낸시 홀스트롬 엮음, 서울: 메이데이, Holmstrom, N.(ed.)(2002), *The Socialist Feminist Project: A Contemporary Reader in Theory and Polit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62-180쪽.
- 신광영·장은애·김경희 외(2014), 『세계화와 생애과정의 구조변동』, 서울: 집문당.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한국사회에서 아이갓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47집 2호, 143-176쪽.
- 이선이(2014), “현대사회의 부모-자녀 관계”,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김혜경·강이수·김현미 외, 서울: 다산출판사, 218-242쪽.
- 이소영(2014), “고령임신 현황과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13호, 24-35쪽.
- 이수현(2012), “기혼 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22권 3호, 43-88쪽.
- 이순미(2014), “생애과정의 복합적 탈근대화 와 가족화와 개인화의 이중적 과정: 1955-1974년 성인기 이행 배열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8집 2호, 67-106쪽.
- 이재경(2004), “한국 가족은 ‘위기’인가?: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비판”,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229-244쪽.
- 이지영(2013), “고학력 무자녀 가족 여성의 삶의 경험을 통해 본 젠더 질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장경섭(2011), “‘위험회피’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제23집 3호, 1-23쪽.
- 정태연·조은영(2005), “노년기의 외로움 및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탐색”, 『한국노년학』, 제25권 1호, 55-71쪽.
- 조준영(2006), “‘자발적 무자녀 여성’의 갈등과 협상에 관한 연구: 생활세

계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황정미(2014), “가족·국가·사회재생산”, 『가족과 친밀성의 사회학』, 김
혜정·강이수·김현미 외, 서울: 다산출판사, 30-52쪽.

Basten, S.(2009), “Voluntary Childlessness and Being Childfree”,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 Working Paper #5, supported by
St. John’s Colledge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Oxford and the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p. 1-23.

Cain, L. D.(1964), “Life Course and Social Structure”, in *Handbook of
Modern Sociology*, ed. R. E. L. Faris, Chicago: Rand McNally, pp.
272-309.

Sorensen, A. B.(1986), “Social Structure and Mechanisms of Life-Course
Processes”, *Human Development and the Life Course: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ed A. B. Sorensen, F. E. Weinert, and L. R.
Sherrod, Hove: Psychology Press, pp. 177-197.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통계청: www.kostat.go.kr.

〈신문기사·잡지〉

『한겨레 21』, 제1025호, 2014. 8. 19, “TV 속 출산율은 급상승!”.

(논문 투고일: 2015.10.27, 심사 확정일: 2015.11.23, 게재 확정일: 2015.12.02)

〈Abstract〉

A Study on the Denormalization of the Life Courses of Child-free Married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Practice

Kim, Mi-Young* · Kim, Mi-R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and resignify the denormalization value of child-free women's life courses in the marriag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family practice and life course.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childless married women experience tensions between normative roles required according to the life course and their desire for planning their own lives in a manner that is in conflict with traditional norms. Second, living as a childless couple means a life that is in the progress of renewing every moment while comprehens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a critical mind regarding the 'typical' role of parenting and maternal love as well as individual identity and childbearing age. Third, a life without children is derived from a practice based on critical thinking about whether this society is worth having and raising a child. Also, it means that childless couples have newly recognized old age as their remaining life and that they serve as active subjects who change the signification of old age by mutually caring for their partners through intimacy found outside a family network.

Key words: child-free family, family practice, life course, denormalization of the life courses, family reproduction

* Lead author, M.A., Department of Gender Studies, Graduate School of NGO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HK Professo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